

제목 글자의 기능

단락 제목은 앞 글과 적절히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통 앞 글과 한 글줄 내지 한 글줄의 1/2 크기를 벌려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그 구분이 필요할 경우 소제목 앞 글줄의 공간은 뒷 글줄의 사이공간보다 커야한다. 세리프의 유무로 서로 대비되는 글자를 소제목으로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은 본문체와 대비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제목은 본문체보다 두꺼운 서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글줄사이를 조절할 때는 많은 요소들, 즉 엑스하이트, 수직획의 강도, 세리프의 유무, 활자의 크기와 글줄의 길이 그리고 심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글줄사이 공간은 글줄을 서로 적당히 구분시킬 수 있어야 하며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은 단어사이 공간보다 글줄사이 공간이 더 커야 독서의 흐름이 용이해진다.

글자 크기는 글줄사이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글줄사이의 활자의 크기에 비례하여 적당하게 조절되어야 한다. 글줄사이의 글자 크기에 1.6 배에서 2배 정도가 적당하며, 예를들어 글자 크기가 10포인트일 때 보통 16~20포인트가 글줄사이로 적당하다. 이보다 좁은 공간은 아래윗줄의 글자들이 닿아보이게 되므로 가독에 좋지 않고, 이보다 넓은 공간은 글줄사이의 흰 여백이 글줄보다 더 도드라져 보여 글줄사이의 흰 공간이 글줄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보인다.

단락이 새로 시작될 때 그 시작되는 글줄 만 내어짜는 것을 말한다. 단락이 새로 시작될 때 그 시작되는 글줄 만 내어짜는 것을 말한다. 단락이 새로 시작될 때 그 시작되는 글줄 만 내어짜는 것을 말한다. 장식적 요소를 사용하여 단락을 구분하는 것은 인쇄술 초창기에 사용되었던 방법이다. 단락과 단락이 구분되는 지점에 장식적 요소를 배치함으로써 단락을 구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문과 대비

사용할 수 있는 제목글자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디자이너들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본문 글꼴이 이미 선택되었다고 가정할 때 가장 우선적 고려사항은 제목 글꼴이 본문 글꼴과 비슷할 것인가 또는 대비를 이룰 것인가를 결정짓는 문제이다. 우선 본문 글꼴과 일관된 성격의 활자이거나 같은 글꼴가족에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본문이 명조계열이면 같은 명조 계열 안에서 본문과 분명한 대비를 이룰 수 있는 활자를 선택한다. 반대로 본문과 충분한 대비효과를 주려면 본문과 성격이 다른

본문 단락구분 작업 01
단락구분 방식: 들여짜
기

이름: 정다인
학번: 2014286041

글꼴:
글꼴크기: 9.6pt
글줄사이: 18pt
글자사이: -10/1000
단어사이: 0/1000

제목 글자의

기능

단락 제목은 앞 글과 적절히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통 앞 글과 한 글줄 내지 한 글줄의 1/2 크기를 벌려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그 구분이 필요할 경우 소제목 앞 글줄의 공간은 뒷 글줄의 사이공간보다 커야한다. 세리프의 유무로 서로 대비되는 글자를 소제목으로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은 본문체와 대비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제목은 본문체보다 두꺼운 서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글줄사이를 조절할 때는 많은 요소들, 즉 엑스하이트, 수직획의 강도, 세리프의 유무, 활자의 크기와 글줄의 길이 그리고 심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글줄사이 공간은 글줄을 서로 적당히 구분시킬 수 있어야 하며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은 단어사이 공간보다 글줄사이 공간이 더 커야 독서의 흐름이 용이해진다.

글자 크기는 글줄사이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글줄사이의 활자의 크기에 비례하여 적당하게 조절되어야 한다. 글줄사이의 글자 크기에 1.6배에서 2배 정도가 적당하며, 예를들어 글자 크기가 10포인트일 때 보통 16~20포인트가 글줄사이로 적당하다. 이보다 좁은 공간은 아래윗줄의 글자들이 닿아보이게 되므로 가독에 좋지 않고, 이보다 넓은 공간은 글줄사이의 흰 여백이 글줄보다 더 도드라져 보여 글줄사이의 흰 공간이 글줄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보인다.

단락이 새로 시작될 때 그 시작되는 글줄 만 내어짜는 것을 말한다.
단락이 새로 시작될 때 그 시작되는 글줄 만 내어짜는 것을 말한다.
단락이 새로 시작될 때 그 시작되는 글줄 만 내어짜는 것을 말한다.
장식적 요소를 사용하여 단락을 구분하는 것은 인쇄술 초창기에 사용되었던 방법이다. 단락과 단락이 구분되는 지점에 장식적 요소를 배치함으로써 단락을 구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문과

대비

사용할 수 있는 제목글자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디자이너들은

본문 단락구분 작업 02
단락구분 방식: 글줄사
이 1줄 비우기

이름: 정다인
학번: 2014286041

글꼴:
글꼴크기: 9.6pt
글줄사이: 18pt
글자사이: -10/1000
단어사이: 0/1000 98%

제 목 글 자 의 기 능

단락 제목은 앞 글과 적절히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통 앞 글과 한 글줄 내지 한 글줄의 1/2 크기를 벌려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그 구분이 필요할 경우 소제목 앞 글줄의 공간은 뒷 글줄의 사이공간보다 커야한다. 세리프의 유무로 서로 대비되는 글자를 소제목으로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은 본문체와 대비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제목은 본문체보다 두꺼운 서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글줄사이를 조절할 때는 많은 요소들, 즉 엑스하이트, 수직획의 강도, 세리프의 유무, 활자의 크기와 글줄의 길이 그리고 심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글줄사이 공간은 글줄을 서로 적당히 구분시킬 수 있어야 하며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은 단어사이 공간보다 글줄사이 공간이 더 커야 독서의 흐름이 용이해진다.

글자 크기는 글줄사이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글줄사이의 활자의 크기에 비례하여 적당하게 조절되어야 한다. 글줄사이의 글자 크기에 1.6 배에서 2배 정도가 적당하며, 예를들어 글자 크기가 10포인트일 때 보통 16~20포인트가 글줄사이로 적당하다. 이보다 좁은 공간은 아래윗줄의 글자들이 닿아보이게 되므로 가독에 좋지 않고, 이보다 넓은 공간은 글줄사이의 흰 여백이 글줄보다 더 도드라져 보여 글줄사이의 흰 공간이 글줄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보인다.

단락이 새로 시작될 때 그 시작되는 글줄 만 내어짜는 것을 말한다. 단락이 새로 시작될 때 그 시작되는 글줄 만 내어짜는 것을 말한다. 단락이 새로 시작될 때 그 시작되는 글줄 만 내어짜는 것을 말한다. 장식적 요소를 사용하여 단락을 구분하는 것은 인쇄술 초창기에 사용되었던 방법이다. 단락과 단락이 구분되는 지점에 장식적 요소를 배치함으로써 단락을 구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문 과 대비

사용할 수 있는 제목글자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디자이너들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본문 글꼴이 이미 선택되었다고 가정할 때 가장 우선적 고려사항은 제목 글꼴이 본문 글꼴과 비슷할 것인가 또는 대비를 이룰 것인가를 결정짓는 문제이다. 우선 본문 글꼴과 일관된 성격의 활자이거나 같은 글꼴가족에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본문이 명조계열이면 같은 명조 계열 안에서 본문과 분명한 대비를 이룰 수 있는 활자를 선택한다. 반대로 본문과 충분한 대비효과를 주려면 본문과 성격이 다른 글꼴을, 예를들어 부리(세리프)의 유/무, 획의 두께, 무게, 등의 차이를 명확

본문 단락구분 작업 03	이름: 정다인	글꼴:
단락구분 방식: 단락	학번: 2014286041	글꼴크기: 9.6pt
구분을 표시하지 않기		글줄사이: 18pt
		글자사이: -10/1000
		단어사이: 0/1000

제목 글자의 기능

단락 제목은 앞 글과 적절히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통 앞 글과 한 글줄 내지 한 글줄의 1/2 크기를 벌려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그 구분이 필요할 경우 소제목 앞 글줄의 공간은 뒷 글줄의 사이공간보다 커야한다. 세리프의 유무로 서로 대비되는 글자를 소제목으로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은 본문체와 대비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제목은 본문체보다 두꺼운 서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글줄사이를 조절할 때는 많은 요소들, 즉 엑스하이트, 수직획의 강도, 세리프의 유무, 활자의 크기와 글줄의 길이 그리고 심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글줄사이 공간은 글줄을 서로 적당히 구분시킬 수 있어야 하며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은 단어사이 공간보다 글줄사이 공간이 더 커야 독서의 흐름이 용이해진다.

글자 크기는 글줄사이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글줄사이의 활자의 크기에 비례하여 적당하게 조절되어야 한다. 글줄사이의 글자 크기에 1.6배에서 2배 정도가 적당하며, 예를들어 글자 크기가 10포인트일 때 보통 16~20포인트가 글줄사이로 적당하다. 이보다 좁은 공간은 아래윗줄의 글자들이 닿아보이게 되므로 가독에 좋지 않고, 이보다 넓은 공간은 글줄사이의 흰 여백이 글줄보다 더 도드라져 보여 글줄사이의 흰 공간이 글줄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보인다.

단락이 새로 시작될 때 그 시작되는 글줄 만 내어짜는 것을 말한다. 단락이 새로 시작될 때 그 시작되는 글줄 만 내어짜는 것을 말한다. 단락이 새로 시작될 때 그 시작되는 글줄 만 내어짜는 것을 말한다. 장식적 요소를 사용하여 단락을 구분하는 것은 인쇄술 초창기에 사용되었던 방법이다. 단락과 단락이 구분되는 지점에 장식적 요소를 배치함으로써 단락을 구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문과 대비

사용할 수 있는 제목글자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디자이너들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본문 글꼴이 이미 선택되었다고 가정할 때 가장 우선적 고려사항은 제목 글꼴이 본문 글꼴과 비

본문 단락구분 작업	이름: 정다인	글꼴:
04 단락구분 방식: 내	학번:2014286041	글꼴크기: pt
어짜기		글줄사이: 19pt
		글자사이: -10/1000
		단어사이: 0/1000

☆제목 글자의 기능

단락 제목은 앞 글과 적절히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통 앞 글과 한 글줄 내지 한 글줄의 1/2 크기를 벌려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그 구분이 필요할 경우 소제목 앞 글줄의 공간은 뒷 글줄의 사이공간보다 커야한다. 세리프의 유무로 서로 대비되는 글자를 소제목으로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은 본문체와 대비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제목은 본문체보다 두꺼운 서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글줄사이를 조절할 때는 많은 요소들, 즉 엑스하이트, 수직획의 강도, 세리프의 유무, 활자의 크기와 글줄의 길이 그리고 심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글줄사이 공간은 글줄을 서로 적당히 구분시킬 수 있어야 하며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은 단어사이 공간보다 글줄사이 공간이 더 커야 독서의 흐름이 용이해진다. ★ 글자 크기는 글줄사이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글줄사이의 활자의 크기에 비례하여 적당하게 조절되어야 한다. 글줄사이의 글자 크기에 1.6배에서 2배 정도가 적당하며, 예를들어 글자 크기가 10포인트일 때 보통 16~20포인트가 글줄사이로 적당하다. 이보다 좁은 공간은 아래윗줄의 글자들이 닿아보이게 되므로 가독에 좋지 않고, 이보다 넓은 공간은 글줄사이의 흰 여백이 글줄보다 더 도드라져 보여 글줄사이의 흰 공간이 글줄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보인다. ★ 단락이 새로 시작될 때 그 시작되는 글줄 만 내어짜는 것을 말한다. 단락이 새로 시작될 때 그 시작되는 글줄 만 내어짜는 것을 말한다. 단락이 새로 시작될 때 그 시작되는 글줄 만 내어짜는 것을 말한다. 장식적 요소를 사용하여 단락을 구분하는 것은 인쇄술 초창기에 사용되었던 방법이다. 단락과 단락이 구분되는 지점에 장식적 요소를 배치함으로써 단락을 구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문과 대비

사용할 수 있는 제목글자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디자이너들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본문 글꼴이 이미 선택되었다

본문 단락구분 작업	이름: 정다인	글꼴:
05 단락구분 방식:	학번: 2014286041	글꼴크기: 9.6pt
장식적 요소 사용하		글줄사이: 19pt
기		글자사이: -10/1000
		단어사이: 0/1000

제목 글자의 기능

단락 제목은 앞 글과 적절히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통 앞 글과 한 글줄 내지 한 글줄의 1/2 크기를 벌려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그 구분이 필요할 경우 소제목 앞 글줄의 공간은 뒷 글줄의 사이공간보다 커야한다. 세리프의 유무로 서로 대비되는 글자를 소제목으로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은 본문체와 대비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제목은 본문체보다 두꺼운 서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글줄사이를 조절할 때는 많은 요소들, 즉 엑스하이트, 수직획의 강도, 세리프의 유무, 활자의 크기와 글줄의 길이 그리고 심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글줄사이 공간은 글줄을 서로 적당히 구분시킬 수 있어야 하며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은 단어사이 공간보다 글줄사이 공간이 더 커야 독서의 흐름이 용이해진다.

글자 크기는 글줄사이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이다. 글줄사이의 활자의 크기에 비례하여 적당하게 조절되어야 한다. 글줄사이의 글자 크기에 1.6 배에서 2배 정도가 적당하며, 예를들어 글자 크기가 10포인트일 때 보통 16~20포인트가 글줄사이로 적당하다. 이보다 좁은 공간은 아래윗줄의 글자들이 달아보이게 되므로 가독에 좋지 않고, 이보다 넓은 공간은 글줄사이의 흰 여백이 글줄보다 더 도드라져 보여 글줄사이의 흰 공간이 글줄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보인다.

단락이 새로 시작될 때 그 시작되는 글줄 만 내어짜는 것을 말한다. 단락이 새로 시작될 때 그 시작되는 글줄 만 내어짜는 것을 말한다. 단락이 새로 시작될 때 그 시작되는 글줄 만 내어짜는 것을 말한다. 장식적 요소를 사용하여 단락을 구분하는 것은 인쇄술 초창기에 사용되었던 방법이다. 단락과 단락이 구분되는 지점에 장식적 요소를 배치함으로써 단락을 구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문과 대비

사용할 수 있는 제목글자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디자이너들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본문 글꼴이 이미 선택되었다고 가정할 때 가장 우선적 고려사항은 제목 글꼴이 본문 글꼴과 비슷할 것인가 또는 대비를 이룰 것인가를 결정짓는 문제이다. 우선 본문 글꼴과 일관된 성격의 활자이거나 같은 글꼴가족에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본문

본문 단락구분 작업	이름: 정다인	글꼴:
06 단락구분 방식:	학번: 2014286041	글꼴크기: 9.6pt
		글줄사이: 19pt
		글자사이: -10/1000
		단어사이: 0/1000